

이 현종외 37명은 6.25를 전후하여 복귀군과 맞써 용전 분투하다가 전사한 우리 아산군내의 경찰관들이다. 국민의 안녕질서와 나라위해 목숨을 바친 그 얼을 기리기 위해 아산군 신창면 읍내리 휴게소에 세워진 충훈탑 안내판과 탑면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 탑은 지고한 애국과 충성의 표상으로 건국 및 호국 경찰의 사명을 완수하다 산화한 온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충혼을 봉안하였다. 8.15 광복후 비운의 역사속에서 반공 구국의 투철한 신념과 사명으로 내 일신을 바쳐 각 지구 전투에서 용전타 전사한 38주의 위명과 업적을 추모하여 위령코자 온양경찰서 직원과 아산군내 경우회원이 합동으로 그날의 격전지 이곳 신창고개에 38개 계단을 쌓고 38개의 탑을 세워 만세에 빛내고저 건립한 것이다.

여기 아로새긴 당신들의 뉘은

살신성인의 증인되시고

구원한 민족사의 등불이시다.

고난과 비운의 구비구비마다

그 뜨거운 충정 가슴에 안고

민족의 제단에 산화하셨네

못다핀 거래의 영혼이여!

님들의 고귀한 뜻 돌로 세우니

영원토록 이 나라의 파수가 되리.

고경감 이현종 조순화

고경위 곽병철 김영준 김윤식 김종석 민병룡 박근환 박병갑 박용규 박재익

박을제 오석근 우영제 유재경 윤병찬 이경승 이광식 이재덕 이재훈

이종환 이필선 정갑준 지춘교 차은식 최용진 최창식 홍종모 황영석

고경사 김도식 김정립 원종무 신태운 이상진 이영삼 이유형 최정남 고순경

정순관